소공동체와 영적 성장을 위한

길잡이

2025 **11**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희망의 순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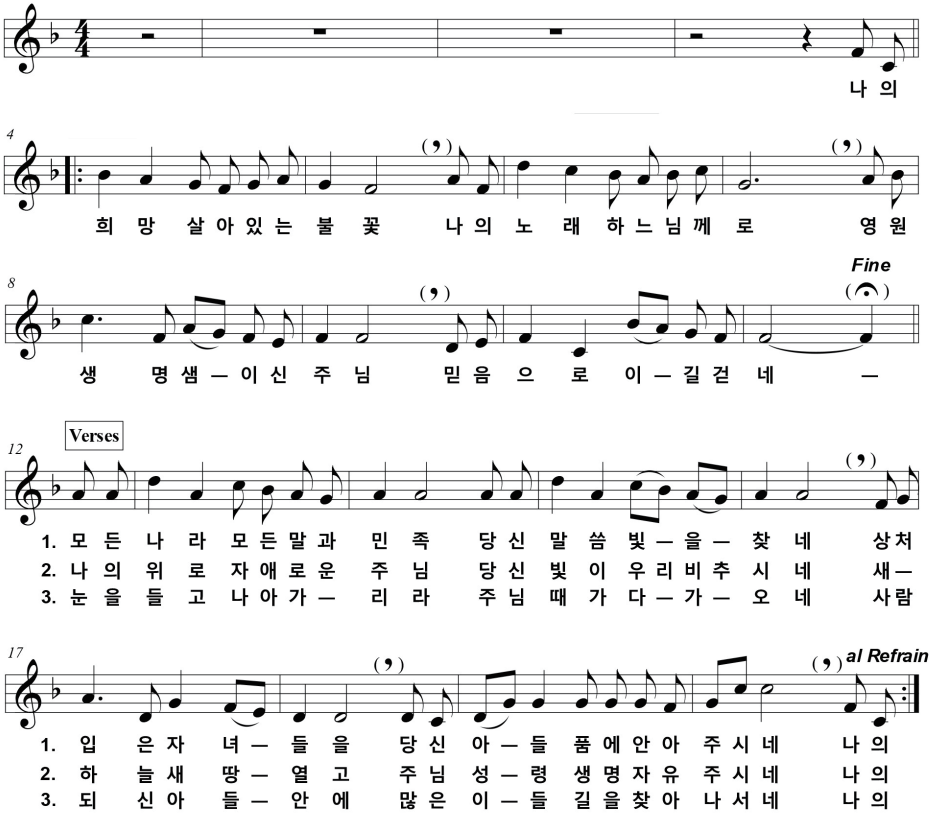
2025 희년 주제곡

Music: Francesco Meneghello

Original text: Pierangelo Sequeri

Korean translation: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Contents

4 • **시노드 기도 / 2025년 희년 기도**

6 • **성령 안에서의 대화**

10 • **구역반장 월례연수**

16 • **말씀나눔**(김상욱 가브리엘 신부)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 평신도 주일
연중 제33주일 /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대림 제1주일

38 • **가로세로 낱말 퀴즈**

40 • **하느님의 종 브뤼기에르 주교**
전교의 열망을 품고 내딛는 선교사로서의 소임

42 • **성경 73 / 성경 통독 길잡이**
테살로니카1서

46 • **매일 하느님과 함께**

47 • **문화산책**



발행인 정순택 **편집인** 김연범 **편 집** 박진원 **인 쇄** 가톨릭출판사

발 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www.samok.or.kr

문 의 02) 727-2085 / samok@seoul.catholic.kr

이 교재의 저작권과 판권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에 있으며, 모든 내용에 대한 임의 변경과 복제를 불허합니다.

시노드 기도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Adsumus Sancte Spiritus)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2025년 희년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성령 안에서 대화

1. 시작 기도 – ‘시노드 기도’

- 시작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를 바치겠습니다.

2. 개인적 준비



성부께 자신을 맡겨 드리고, 주님이신 예수님과 기도 안에서 대화하며, 성령께 귀 기울이면서, 각자 식별하도록 부름받은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준비합니다.

오늘 주제는 「소공동체」입니다.

본당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며 생겨난 문제들에 대처하고자 1990년대부터 소공동체 사목이 교구에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본당에서는 한 분 혹은 세 분의 신부님이 많은 신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인격적 만남의 기회를 갖기 어렵게 되어, 구역과 반이라는 소공동체 모임은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반 모임이나 구역 모임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도 늘어났으며, 반과 구역에서 대표로 봉사해 주실 분을 찾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모임이 신앙적이기보다는 친목 모임이 되어 버린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공동체 모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상욱 가브리엘 신부(사목국 기획연구팀)

- 오늘 주제와 연관하여 나의 신앙 체험 안에서 어떤 울림이 있는지 3분간 묵상하겠습니다.

3. 말하고 듣기 – 〈나눔 I 〉



각자 자신의 경험과 기도에 대해 발언하고, 다른 이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제공된 주제 중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을 통해 마음에 와닿은 내용 나누기

- 각자 개인 성찰의 내용을 3분을 넘지 않게 나눕니다. 자신이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3~4명이 발표하면 2분간 묵상합니다. 이어서 3~4명이 발표할 때마다 2분간 묵상합니다. (3~4명 발표 – 2분 묵상 – 3~4명 발표 – 2분 묵상 –3~4명 발표)

- (3~4명 정도 나눔을 한 후) 2분간 묵상하며 성령께서 모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하느님께 내 마음 속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 침묵과 기도 I

다른 참가자들의 나눔 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침묵 중에 경청

•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3분간 성찰하겠습니다.

5. 다른 이들과 하느님께 공간을 내어주기 – 〈나눔 II〉



다른 이들이 말한 것에서 각자 가장 깊이 공감한 것 또는 저항감을 일으킨 것을 나누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맡깁니다. "우리가 들을 때 가슴안에서 나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참가자들의 나눔을 통해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 나누기

• 나눔 대화에서 들은 내용 중에서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퍼졌다고 느낀 것에 대하여 2분 이내로 나눕니다.

• (3~4명 정도 나눔을 한 후) 2분간 묵상하며 성령께서 모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묵상하겠습니다.

6. 침묵과 기도 II

오늘 나눈 모든 것들 속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침묵 중에 경청

•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느 여정으로 이끄시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3분간 갖겠습니다.

7. 함께 만들어 나아가기 – 〈나눔 III〉



성령 안에서 대화의 열매를 식별하고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앞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대화합니다.

즉 통찰과 수렴된 것을 인식하고, 이견과 방해 요소, 새로운 질문을 확인하며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이 작업 결과가 자신을 대표한다고 모두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떤 단계로 함께 가도록 부르고 계신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모두가 함께 나아가고 성장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선교적 시노드 교회가 되기 위한 제안

- 묵상하고 나눔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본당)를 위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오늘 '성령 안에서 대화' 모임에 대한 소감과 제안을 각자 2분 이내로 나누겠습니다.

  3명이 발표하면 2분간 묵상합니다. 이어서 3명씩 발표할 때마다 2분간 묵상합니다. (3~4명 발표 – 2분 묵상 – 3~4명 발표 – 2분 묵상 – 3~4명 발표)
- (3~4명 정도 나눔을 한 후) 2분간 묵상하며 성령께서 모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묵상하겠습니다.

8. 마침 기도

- 오늘 '성령 안에서 대화' 모임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마침 기도로 '2025년 희년 기도'(5페이지)를 바치겠습니다.

시노달리타스, 성령께서 바라시는 교회를 꿈꾸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제16차 세계 주교시노드가 개최되었습니다. 2021년 말부터 전 세계 각 본당, 단체 등에서 시노달리타스를 주제로 경청의 과정을 거쳤고, 여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2023-2024년 두 번의 회기 안에서 다룰 의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4년 10월에 최종문헌이 발표되었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최근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일 것입니다.

적당한 한국어가 없어서 라틴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 신자들에게 발음부터 쉽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시노달리타스를 3천년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교회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시노달리타스는

그리스어 '쉬노도스'에서 온 단어로서, 쉬노도스는 '함께 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노달리타스에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 곧 교황님, 주교님, 사제와 부제, 수도자, 평신도들 모두가 함께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고 함께 교회의 충만한 완성을 향해 걸어간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의 고유한 특성을 가리킨다.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데에서, 회중의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복음화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에서 자신이 친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실현한다."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2]2023, 6항)

교회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의해 세워졌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누리는 친교에 참여하도록 초대되었으며, 하느님을 거룩하게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도 이 친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은 성직자나 수도자만이 아니라, 세례 받은 모든 이가 받은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말씀하신 것처럼(신학대전 3부 71문 4

절 답3), 이 사명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이 삶과 사명에 모두가 참여한다는 것을 골자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가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관계'의 측면이 그러한데, 성직자와 평신도, 수도자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성직자들 사이, 평신도들 사이, 수도자들 사이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를 '함께 가는 동반자'로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신의 몫을 충실히 하고 다른 이들도 그 몫을 하도록 도우면서 우리가 공통으로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데 협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마다의 몫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구체적이고 기초적인 태도가 바로 대화와 소통입니다.

시노달리타스 방식의 과정은 '대화-성찰-식별-결정-실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참으로 시노달리타스 방식이기 위해서는 이 과정들이 순환적이어야 합니다. 먼저 대화의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대화와

소통의 궁극적 목적은 단지 우리 사이에 어떤 '합의'를 끌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교회, 이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살게 하시는 이도, 일치시키는 이도,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수행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와 흡사해 보이는 시노달리타스지만 그것과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이가 가진 품위의 인정과 능동적 참여라는 점에서는 민주주의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다수결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식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평신도 누구에게든 활동하십니다. 여기에 서로 경청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경청하는 교회이고, 경청이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교회입니다. 바로 상호 경청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백성, 주교단, 로마 주교, 그 각자는 다른 이들을 경청하고, 모든 이는 성령, 곧 "진리의 영"(요한 14,17)을 경청하여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묵시 2,7)을 알게 됩니다."(교황 프란치스코, 「주교대의원회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2015.10.7.)

그러므로 경청이란, 단순히 평신도의 말만을 듣는 것도, 성직자의 말만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함께 식별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자유롭고 질서있게' 살고, 활동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계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시노달리타스는 교계제도의 역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감의 여정 안에서 그 역할을 '새롭게' 이해할 것을 요청합니다. 단순히 신자들의 의견에 끌려가는 것도, 그렇다고 신자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신자들이 자신의 몫을 잘할 수 있도록 돌보면서 이 여정을 책임있게 이끌어갈 것이 요청됩니다. 시노달리타스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상호 호혜적 관계 속에서 저마다의 몫을 하며 함께 하느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과 복음선포라는 공통의 사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시노달리타스는 그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가는, 일하는, 걸어가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와 세상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는 표징들을 함께 읽어야 하고, 우리의 활동 내용과 방식을 결정해야 하며, 결정한 것에 저마다의 몫으로 기여하고 함께 협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항상 더 나은 방식을 선택해 나갑니다. 이런 면에서 시노달리타스 과정은 일련의 순환과정입니다.

최현순 데레사 교수(서강대학교)

말씀나눔 방법

1. 시작 기도

- 시작 기도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며 주님을 우리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2. 말씀 듣기

-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을 선택합니다.
- 침묵 가운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묵상합니다.
- 다시 한 번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3. 말씀 찾기

- 봉독한 말씀을 떠올리며 작성해보고, 잘 기억나지 않으면 성경 본문을 보면서 확인해봅니다.

4. 복음 이해하기

- 복음 말씀을 더 잘 묵상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알아봅니다.

5.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 질문을 읽고 여기에 대한 자신의 묵상을 적어보고 함께 나누어 봅니다.
- 묵상을 안내하는 질문 외에도 마음 안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다면 적어봅니다.
- 나눔을 할 때에는 경청하고, 나눔의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6. 말씀의 실천

- 지난 주(달) 실천하기로 정한 것들을 실행했는지 함께 확인해봅니다.
- 자신과 소공동체가 한 주(달) 동안 실천할 일을 함께 정해봅니다 : 실천 사항은 누가, 무엇을, 언제 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본당 소식 및 구역·반 소식을 전달하고 건의사항을 논의합니다.
-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를 결정합니다.

7. 마침 성가와 기도

-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침 성가로 '희망의 순례자들'(2페이지)을 부르고 기도를 바칩니다.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마태 5,1-12ㄴ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마태오 복음서 5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마태오 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① "(　　)하여라, (　　)하는 사람들! 그들은 (　　)를 받을 것이다."(4절)

② "(　　)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　　)를 받는 사람들! (　　)가 그들의 것이다."(10절)

③ "기뻐하고 (　　)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　　)이 크다."(12절)

복음 이해하기

① 위령의 날

모든 죽은 이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로마 전례력은 '모든 죽은 신실한 이들을 기억'(Commemoration of All the Faithful Departed)하는 날로 설명합니다. 이 '신실한 이'는 좁게 해석하면 세례를 받고 대죄 없이 은총 상태에서 지상의 삶을 마친 이로 볼 수 있지만, "성령께서 하느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파스카 신비에 동참할 가능성을 주신다고 믿어야"(「사목헌장」 22항) 하므로 우리는 죽은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입을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② 모든 성인 대축일과 팔일축제

교회의 전통은 10월31일 모든 성인 대축일 전야, 11월 1일 모든 성인 대축일, 11월 2일 위령의 날까지 3일을 연속으로 기념해왔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축제로 지내며 전대사(죄의 유한한 벌인 잠벌을 모두 면제해 주는 일. 전대사를 받으려면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지향에 따라 바치는 기도 등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1955년 비오12세 교황의 전례 개혁으로 8일 축제는 없어졌지만, 11월 1일부터 8일까지 교회가 규정한 조건(묘지참배, 죽은 이를 위한 기도, 위령의 날의 성당을 방문하여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침 등)을 따르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시며,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2. 2025년 정기 희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과 형제자매들 그리고 나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었는지 나누어 볼까요?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1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2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항상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마침 성가('희망의 순례자들',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5년 희년 기도'(5페이지)를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평신도 주일

요한 2,13-22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요한 복음서 2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요한 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① "내 (　　)의 집을 (　　)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16절)

② "이 (　　)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　　) 안에 다시 세우겠다."(19절)

③ 그분께서 (　　)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　　)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21절)

복음 이해하기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

가톨릭 교회의 총본산이자 라틴서방교회의 총대주교좌인 로마에는 교황의 대성전(바실리카, Basilica)이 넷 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전, 성 밖 성 바오로 대성전, 성모 대성전, 그리고 오늘 축일을 지내는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입니다.

현재 바티칸 시국에 있는 베드로 사도의 무덤 위에 건립된 성 베드로 대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라테라노 대성전에 로마 주교좌, 즉 교황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이 프랑스의 아비뇽에서 지내던 시기(1309-1377년)에 로마는 황폐해졌고, 특히 라테라노 대성전은 다시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아비뇽에서 돌아온 후, 성 베드로 대성전을 짓고 교황이 머물게 된 이후로 라테라노 대성전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도 교황 선출 후 즉위미사는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로마 교구장 착좌식은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거행합니다.

이 성전 자리를 가톨릭 교회에 양도한 사람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실제로 대성전 옆 콘스탄티누스가 세례를 받은 장소에 세례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라테라노 대성전에서는 다섯 차례 세계 보편 공의회가 개최되었고, 현재 이탈리아 공화국과 교황청의 국가 간 조약인 라테란 조약(1929년)이 체결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성지 순례 가운데 어느 성당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강한 인상을 받았는지 나누어 볼까요?

2. 우리 몸도 성령이 거처하시는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일상생활에서나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인간의 몸을 바라보며 하느님의 모습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1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2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우리를 당신 성전으로 불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마침 성가('희망의 순례자들',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5년 희년 기도'(5페이지)를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루카 21,5-19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루카 복음서 21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루카 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① "너희는 (　　)과 (　　)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　　)하지 마라."(9절)

② "너희는 명심하여, (　　)할 말을 미리부터 (　　)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　　)과 (　　)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14-15절)

③ "너희는 (　　)로써 (　　)을 얻어라."(19절)

복음 이해하기

더 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본받고 닮기 위하여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지내며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누구든지 가난보다는 부자가 되는 것을,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것을, 불명예스러운 것보다는 명예로운 것을, 단명하는 것보다는 장수를 더 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16세기, 지금으로부터 500여년 전에 예수회라는 수도회를 설립한 스페인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1491-1556년)의 영혼을 단련하는 지침서이자 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영신수련(Spritual Exercises)에 따르면, 우리가 지상 재화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신수련 23항은 "모든 사물들은 사람이 창조된 목적에 도움이 되면 그만큼 사용할 것이고, 방해가 되면 그만큼 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재물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이므로, 사람이 창조된 목적(하느님을 찬미하고 자기 영혼을 구함)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러하듯 가난함보다 부유함을 더 원하지 않을 수 있는, 즉 재물에 초연한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167항에서 이냐시오는 가난함이나 부유함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림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경우에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에서 더욱 본받고 닮기 위해서" 가난을 원하고 선택하는 가장 완전한 겸손을 제시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 역시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하느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해 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2. 가난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①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②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찬미하며 마침 성가('희망의 순례자들',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5년 희년 기도'(5페이지)를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

루카 23,35ㄴ-43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루카 복음서 23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루카 복음 23장 35절에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① "네가 유다인들의 (　　)이라면 너 자신이나 (　　)해 보아라."(37절)

②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　　)이 두렵지도 않으냐? …이분은 아무런 (　　)도 하지 않으셨다."(40-41절)

③ "예수님, 선생님의 (　　)에 들어가실 때 저를 (　　)해 주십시오."(42절)

복음 이해하기

왕이신 그리스도

가톨릭 성가 79번 '그리스도 승리'의 후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승리, 그리스도 왕국, 그리스도 다스리신다." 이 성가의 멜로디는 바티칸 교황청의 라디오 방송국인 바티칸라디오의 메인 테마곡입니다. 지난 5월 18일에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 베드로의 후계자인 267대 교황 레오 14세 즉위 미사의 입당성가 중 하나가 이 '그리스도 승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영원으로부터 다스리심을 노래하는 찬미가 입니다.

신약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께 왕의 호칭을 드린 경우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왕, 유다인들의 왕, 이스라엘의 임금, 왕 중의 왕 등이 35번 등장하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대부터 이스라엘의 왕권을 드러내는 표현도 12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현재 연중 제34주일에 지내는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1925년에 교황 비오 11세가 전례력에 도입했습니다. 갈수록 신앙을 잃고 세속주의가 득세하던 분위기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진리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축일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지냈었지만, 1970년 전례력 개정 때,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로 옮겨서 지금까지 대림 제1주일 전 주일에 지내고 있습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가난과 모욕을 참아 받으시는 임금님의 모습을 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으신지요?

2. 마지막까지도 자비를 구한 예수님 옆에 매달린 죄수의 모습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1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2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마침 성가('희망의 순례자들',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5년 희년 기도'(5페이지)를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림 제1주일

마태 24,37-44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마태오 복음서 24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마태 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①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　　) 하나는 (　　)이다."(40절)

② "그러니 (　　) 있어라. 너희의 (　　)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　　) 때문이다."(42절)

③ "너희도 (　　)하고 있어라. 너희가 (　　)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44절)

복음 이해하기

대림 시기

대림(待降)은, 강림(降臨) 혹은 장림(將臨)이라고도 했는데 도착하실 분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라틴어 아드벤투스(adventus)는 무엇인가가 가까이 다가와 이르렀다는 의미에서 온 말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 준비하는 시기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성탄 대축일 준비를 여러 지역에서 다양하게 해 왔습니다. 지금처럼 성탄 전 4주간을 지내게 된 것은 성 그레고리오 대 교황(590-604 재위)의 결정 이후에 정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밀라노 전례와 같이 6주간의 대림 시기를 보내는 전통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현행 로마 미사 경본의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규범은 대림 시기를 두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 오셨음을 기념하는 주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의미와 "이러한 기념을 통하여 시간이 끝날 때 두 번째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두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 두 주제가 대림 시기의 말씀을 관통합니다. 대림 시기의 앞부분(대림 제1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은 종말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 뒷부분(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은 곧 맞이할 성탄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올 해 대림 시기 첫 주일의 말씀은 '사람의 아들의 재림'이 어느 날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에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1. 살면서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 기대와 희망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요?

2. 이번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모습의 성탄 축제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1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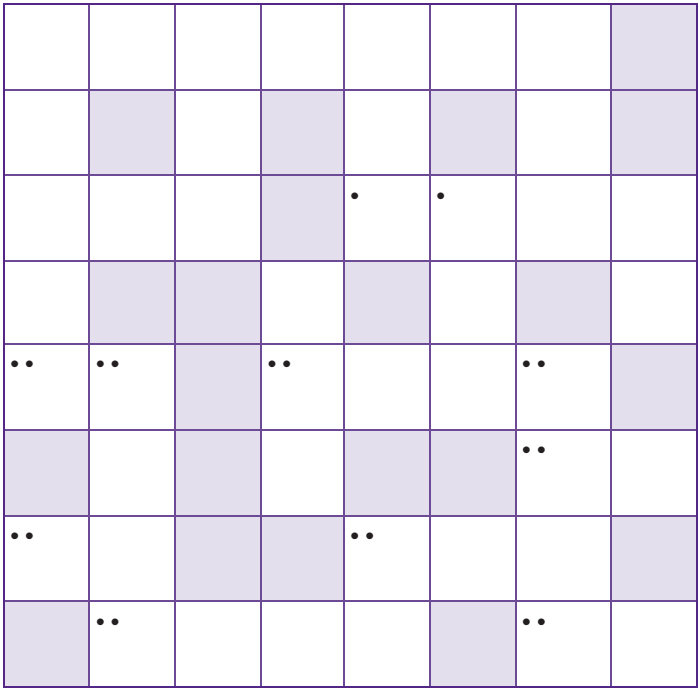
2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청하며 마침 성가('희망의 순례자들',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5년 희년 기도'(5페이지)를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로세로 낱말 퀴즈



1. 기록되지 않은 성인들까지 모든 성인을 위해 지내는 대축일. 11월 1일.
5. 도시의 문화 형태가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발전 · 확대됨. 또는 그렇게 만듦.
6.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방영된 우리나라 최장수 TV 드라마.
10. 얼굴의 눈썹 위로부터 머리털이 난 아래까지의 부분.
12. 교회음악 가운데 특별히 전례문에 결부된 노래로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신자들의 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음악.
14. 다른 사람을 위해 탄원한다는 의미로 하느님 나라에 계신 성모님과 성인들께 하느님께 빌어달라고 청하는 기도.
15. 대구대교구의 박해 시대 교우촌이자 순교성지.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소재.

16. 통일신라시대의 장군. 청해진을 세우고 해적을 소탕해 남해의 제해권을 확보하였다.
17. 프랑스어로 '우리의 마님'이란 뜻, 곧 성모님을 가리키는 말로 파리에 있는 대성당이 유명하다.
18. 어떤 대상을 이기거나 극복하기 위한 싸움.

1. 에스테르기의 중요 인물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이며 수사 왕궁에서 봉직하였다. 에스테르의 보호자.
2. 성찬 전례 중에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실체 변화함을 이르는 말.
3. 역사적, 예술적, 신앙적인 면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성당에 교황이 부여하는 칭호. 11월 9일에 봉헌 축일을 지내는 성 요한 라테라노 ○○○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목포 산정동순교자기념성당이 준○○○의 지위를 갖고 있다.
4. 한 주의 첫 날. 주일.
7. 창세기 3장 15절은 하느님께서 최초로 인류 구원을 약속하신 기쁜 소식으로 ○○○이라고 부른다.
8.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냄.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여 성찬례를 행하라고 하셨다.
9. 산이나 들에 불을 지른 자리를 일구어 농사를 짓는 사람.
11. 투르의 주교. 예비신자로 로마 군인이던 시절 자신의 망또를 잘라 성문 앞에서 구걸하던 걸인에게 입혀준 일화가 유명하다. 11월 11일에 축일을 지낸다.
13. 매우 어려운 조건을 무릅쓰고 힘을 다하여 고생스럽게 싸움.
16. 확신을 가지고 아주 자신있게 말함. 또는 그런 말.

김광두 고스마 신부(전산정보실)

'가로세로 낱말 퀴즈' 정답은 사목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종

브뤼기에르 주교

전교의 열망을 품고 내딛는 선교사로서의 소임

마카오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을 보낸 브뤼기에르 신부는 1826년 12월 11일 다시 출발하여 1827년 1월 12일 페낭에 도착하였고, 이후 주님 부활 대축일 다음 날인 4월 16일 페낭을 떠나 1827년 6월 3일 드디어 첫 소임지인 시암의 수도 방콕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시암 대목구장 플로랑 주교를 보필하며 사제 양성을 위한 신학교 교수직과 함께 주교좌의 본당 사목을 겸할 뿐만 아니라 교구청 업무도 병행하며 분주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의 열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플로랑 주교는 브뤼기에르 신부를 대목구장 계승권을 지닌 부주교로 임명하기 위해 교황청에 청원서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 무렵 교황청에서는 조선을 북경 교구에서 분리된 대목구로 독립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레고리오 16세(1831-1846년 재위) 교황이 되는 당시 포교성성 장관 카펠라리 추기경은 1827년 9월 1일 파리외방전교회 총장 랑글루아 신부에게 서한을 보내어 조선 대목구가 설정되면 이를 맡아서 관리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하지만 파리외방전교회는 인적 · 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조선 입국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고 이에 교섭은 난항을 겪습니다.

최연준 사도요한 신부(사목국 기획연구팀)

카르카손 교구 총대리 귀알리 신부에게 보낸
1826년 말~1827년 초 편지

저는 조선 교우들을 도우러 가고 싶은 열망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제게 맡겨진 소임(시암 교구 사목)에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선으로 가려고 제 소임을 버리는 것은 변덕스러운 게 아닐까요? 그렇지만 **포교성성에서 유럽 신부들에게 호소하듯이 파리외방전교회 신부들에게 호소한다면 저는 즉시 조선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페낭에서 파리외방전교회 총장 랑글루아 신부에게 보낸
1827년 2월 4일 편지

존경하올 총장 신부님, … 페낭에 계신 바루델 신부를 비롯해 모든 신부들의 의견에 따라 이제 방콕으로 갈 생각입니다. … (주문모) 신부가 (1801년) 순교한 이래 조선 교우들은 성직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열심한 신입 교우들은 매년 밀사를 보내어 성직자를 보내달라고 베이징 주교에게 간청하지만 베이징 주교는 이제까지 그 간청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 교우들은 같은 내용의 서한(1824년 말 혹은 1825년 말의 편지)을 로마로 보냈습니다. … **어째서 저 불쌍한 조선 교우들을 돌볼 사제가 온 유럽에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브뤼기에르 드림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 정양모·윤종국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7.
《브뤼기에르 주교 여행기》 © 정양모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7.
《브뤼기에르 주교 바로 살기》 © 생활성서사, 2024.

성경 73

성경 통독 길잡이



마케도니아 속주의 수도인 테살로니카는 예로부터 무역과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하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테살로니카에는 유다교 공동체를 비롯해서 여러 인종들과 종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오로 사도가 선교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대다수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가 돌아선 이방인들에 해당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2차 선교 여행 때 실바누스, 티모테오와 함께 테살로니카에 들렀고, 성공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한 유다인들의 소요 사태로 인하여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아쉬운 마음에 바오로는 테살로니카에 다시금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대신 티모테오를 보내서 테살로니카 교회 신자들을 격려합니다. 코린토에 머물던 바오로는 티모테오와 실라스를 다시 만나 테살로니카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에 바오로는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것이 테살로니카 1서입니다.

1장 1-10절은 머리말로서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지방의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테살로니카 신자들의 믿음에 대한 칭찬이 전해집니다. 서두에 밝힌 것처럼 테살로니카는 여러 인종과

종교가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쉬웠습니다. 또한 테살로니카 신자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같은 민족인 유다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야 했기에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오로 사도까지 어쩔 수 없이 몸을 피한 상황이라 어려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에서 돌아서지 않았고, 이 소식을 티모테오로부터 전해 들은 바오로 사도는 편지에서 가장 먼저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2-3장은 서간의 전반부로서 바오로 사도는 먼저 자신이 테살로니카에 방문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된 경위를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고,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대했지만 안타깝게도 유다인들의 박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떠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직접 테살로니카를 다시 방문하려고 하였지만 여건히 허락되지 않자 우선 티모테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티모테오로부터 테살로니카 교회 공동체가 굳은 믿음 아래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며 그때까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흠 없이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4장 1절-5장 22절은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전하는 바오로 사도의 여러 지침과 권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을 이어갈 것을 당부하면서 불륜을 멀리하고, 서로 속이지 말며,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순히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은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사도 1,11)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먼 훗날 종말론적 완성이라는 지평 아래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실제로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마르 13,26)하신 예수님 말씀을 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 가량이 지났음에도 아직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몇몇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자들은 재림에 앞서 죽은 이들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고, 또한 죽은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마주하지 못하기에 훗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이

야기합니다(4,13 참조).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상기시키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간직하고 있다면 죽은 이들에 대해서는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때에 대해서도 그날과 시간이 언제인지 마음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항상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느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상관없이 늘 기쁘게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는 이들에게 재림과 종말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저마다 자신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서로를 도우라고 당부합니다.

5장 23-28절은 테살로니카 1서의 맺음말로서 바오로 사도는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서로 같은 믿음 안에서 형제애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노현기 다니엘 신부(사목국 행정지원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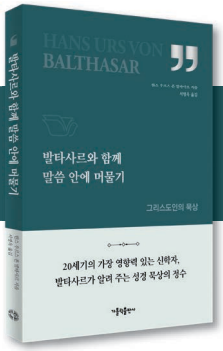
매일 하느님과 함께

이 달에 청하고 싶은 은혜 : .....

날짜	아침저녁 기도	미사 참례	성경 읽기	묵주 기도	성체 조배	희생과 선행	화살 기도	가정 기도	나의 다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계									

하느님께 감사드릴 일 : .....

..... 가(이)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발타사르와 함께 말씀 안에 머물기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지음 | 127×188 | 164면
16,000원 | 가톨릭출판사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발타사르가 안내하는 그리스도교 명상의 핵심

20세기 가톨릭 신학계에 큰 영향을 미친 신학자 발타사르는 '그리스도교적 명상'이란 단순히 내면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골방' 안에서의 침묵, 기다림, 내맡김 속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발타사르의 생애 마지막 시기에 간행된 이 책은 묵상과 기도의 본질을 일깨우고, 우리가 말씀과 침묵 사이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입니다. 마음의 균형을 잃기 쉬운 오늘날, 발타사르가 이야기하는 '묵상'이라는 실천적 행위에 귀 기울이며 그리스도교 명상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 보세요.

가톨릭북플러스 www.catholicbookplus.kr | 도서 구입 문의 02) 6365-1888



카를로 아쿠티스

닉 메일렌더 글 | 알베르트 카레레스 그림 | 148*210 | 200쪽 | 13,000원

내 삶의 목적은 언제나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1991년에 태어나 2006년, 열다섯 살 나이에 하느님 품에 안긴 카를로 아쿠티스는 여느 십 대 청소년처럼 스포츠, 컴퓨터 게임, 영화, 동물을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카를로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였다는 점이죠. 컴퓨터에 뛰어난 재능이 있던 카를로는 인터넷을 통해 복음을 전했기에 '디지털 사도'이자 '주님의 인플루언서'라고 불립니다.

지난 9월 7일 밀레니얼 세대로는 최초로 성인품에 오른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과 신앙을 담은 이 책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대문명의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도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를 선한 지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바오로딸 인터넷서점 www.pauline.or.kr | 구입 문의 02-944-0944


2025 년 희 년
희망의 순례자들